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열두살 어린 아내와 산지는 2년이 다 돼갑니다. 아내는 이혼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딸과 이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15년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마약을 탐닉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람이 임신 7개월 넘도록 아이를 안 낳겠다고 버티며 술·담배를 끊지 않는 탓에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근 사찰의 스님 말씀에 겨우 예쁜 아이를 낳았지만 아내는 모유를 먹이면서 술·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일까지 제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아내가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전의 일까지 떠오르며 한 없이 화가 일어납니다. 화해하지 못한지도 보름이 돼갑니다. 싸울 때마다 술 죽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비난의 말과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작아져서 말이 줄게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생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지만 따뜻한 햇살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 부인을 잘 보듬어 주시면 담배와 술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남편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아들이 조금 더 커서 재물을 부리고, 내담자께서 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부인도 마음 정리를 하고 생

제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부인을 도와주세요

고 있는 아들을 보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굳게 다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해심 많고 겸손하며 가사일도 잘하는 편입니다. 본래 착한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에게 똑같은 슬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가정과 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활을 잘 할 것입니다.

A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시군요. 부인이 술·담배를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큰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Q 교도소에서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동거하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아출신의 저는 어디 갈 곳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협심증 당뇨 고혈압과 원인미상의 마비증세로 거동에도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하루에 한끼만 먹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범죄에 유혹될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죽음이러는 생각 뿐입니다.

이해심도 많고 겸손하며 가사일도 잘하는 착한 부인이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화를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결혼했으면 지난 날은 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부인이 야속하기도 하시겠지요.

A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들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한숨 쉬는 부인의 마음은 무얼까요? 부인이 왜 아기를 안 낳으려 했을까요? 부인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너무 커서 아기를 안 낳으려 한 것은 아닐까요?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는 좋은 가정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단(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척동길 18번지 · 02-6346-0915)에 문의하시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이혼과 딸과의 이별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힘든 일이지요. 딸을 낳기만 하고 키워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 어머니만 알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아내에게 큰소리로 말을 하면 내내는

이곳에서 만난 불법이 삶의 '빛'

사랑법당 탐방 여주교도소 불교실

봄꽃이 만연한 4월 13일 바람은 유달리 차다. 4월 중순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바람은 거셴다. 가뜰이나 추워 보이는 여주교도소를 들어서면 길은 더 울쭉년스러웠다.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는 철창문을 지나 여주교도소 불교실에 들어섰다. 휘몰아치던 바람은 없었고 따뜻한 봄 햇살만이 법당 안을 비추고 있었다.



4월 13일 여주교도소 불교실에서 성무 스님과 어윤식 포교사, 봉사자들이 수용자들과 함께 다과를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고 있다.

“잘들 있었지?” 성무 스님(인양 삼막사 주지·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위원장)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불교실 안에 있던 10여 수용자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여주교도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범우상담 법회가 진행된다. 불우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법회는 수용자의 가족 문제, 생활의 어려움 등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다.

상담법회가 진행되기 전 성무 스님과 수용자들은 불교 경전을 낭독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전공부를 마친 후 스님은 “오늘은 그간 못 보던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소개를 부탁했다. 잠시 숙려하던 수용자는 이내 짧은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수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디씩 자신의 이야기를 보냈다. 이내 불교실은 봄 햇살 만큼이나 따스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다.

상담법회에는 안양 삼막사 신도로 구성된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마련한 과자, 과일, 떡 등의 공양물들을 전해주며 수용자들에게 인부를 물었다.

재소자 교화활동 봉사에 2년 여 가까이 참여한 정연숙(52)씨는 “봉사자들이 마련해 오는 음식들을 수용자들이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규정상 음료수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오늘 같이 떡을 가져오는 날에는 시원한 음료수도 함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럴 때면 수용자들이 은근히 봉사자들을 기다려 책임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규정상 속 깊은 대화를 서로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상담법회에는 봉사자들과 수용자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성무 스님은 여주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 모두 참여하며 재소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교회 봉사활동을 해 온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난 스님은 “법문을 특별히 들려주지 않아도, 평소 실천을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단지 스님으로서 해야 할 공부가 하기 싫어 이런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용자들 걱정뿐이다.

“교도소에서 특별히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라는 것은 지역사회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취급받는 이곳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빛을 밝혀주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여주교도소는 4-5월 크고 작은 행사를 앞두고 있어 스님도 함께 분주한 상황이다.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장애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행사’가 준비 중이다. 이 날은 종교를 초월해 수용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봉축행사 준비도 한창이었다.

이 밖에도 여주교도소에는 정기법회, 불교이초교리반, 경전 사경 공부, 합창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성무 스님은 여주교도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불교행사를 진행하는 뒷걸을 두고 “모두 불교담당자인 어윤식 포교사 덕분”이라고 말했다. 어윤식 포교사는 “단지 스님과 다른 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기만 할 뿐”이라고 답했다.

현재 여주교도소는 불교와 더불어 개신교, 천주교 등에서도 종교교정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어 포교사는 “타종교는 종교행사가 있을 때, 외부 봉사자들도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데 비해 불

교행사에는 스님 혼자 법문을 설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도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고 저바사상을 많이 실천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성무 스님은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방황과 혼란이라는 고비가 찾아와 더욱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한 출소자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처자식과 먹고 살기 힘들어 다시 도박질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 당시에 접했던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출신 물건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회했다”며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기는 힘든 법인데 너무 대견하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고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어윤식 포교사는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알고 수용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부처님의 법을 ‘빛’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에게 회향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주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